

#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 열린다

정읍문화원, 20일 내장산 일대서 개최... 12일까지 시민 수호자 100명 선착순 모집

정읍문화원이 오는 6월 20일 내장산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앞두고 옛 복장을 입고 전통 행렬에 동참할 시민 수호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안의와 손흥록 등 정읍의 백성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내장산으로 옮긴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모집 기간은 6월 12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해 배정된 인원이 다 차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호자로 뽑힌 시민들은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행사장에 모여 옛 평민들의 옷인 민복을 입게 된다.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일주문에서 용굴로 이어지는 이안 행렬 체험에 합류한다. 이 행렬은 왕복 기준 약 80분 동안 이어진다.

전체 기념행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내장산 탐방안내소 앞 광장과 일주문에서 용굴에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실록 수호자 100명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에 이어 이안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극과 행렬이 차례로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이 차려진다. 입구의 초상화인 어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념 사진 촬영 구역을 비롯해 왕 그리기, 전통 놀



정읍문화원이 오는 6월 20일 내장산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앞두고 옛 복장을 입고 전통 행렬에 동참할 시민 수호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부채 만들기, 느린 우체통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방문객을 맞는다.

본 행사에 앞서 분위기를 띄울 사전 홍보 공연도 열린다. 5월 30일부터 기적의 놀이터, 샘골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간다. 이 공연은 안의와 손흥록, 당시 정읍 백성들이 실록을 현신적으로 지켜낸 과정을 시민 참여형 연극 형태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정읍문화원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

낸 선조들의 수호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억하는 이번 행사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행사 참가 신청이나 자세한 안내는 정읍문화원(063-532-0222)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9부 '강패와 무덤' (2)

## 가서 기다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강용대가 죽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식은 붉은여우 앞에 앉자마자 물었다.

"그래?" 붉은여우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치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연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연기였다.

"강용대는 누가 죽인 것입니까? 어떻게 죽은 거죠?"

"자네가 말해 줘서 처음 알아서... 우리도 알아봐야지."

"박창수는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부검했다면 원인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붉은여우는 천천히 다리를 꼬았다.

"자네도 수사관이 다 되었군.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네. 가서 기다려."

"지난번 말했던 대로 전화통화나 녹음한 것이 있으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가서 기다리라는 말에 동식은 더 짜증이 밀려와서 말을 확 내던졌다.

"어허, 사람... 우리도 답답하다고. 그냥 가서 일상생활에 전념하라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연락할 테니까."

붉은여우의 태도는 전혀 피의자를 상대하는 액션이 아니라는 것을 동식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성의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말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다.

동식은 화가 난 것처럼 얼굴을 구기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경찰서를 나왔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나는 혐의가 없어. 붉은여우의 표정과 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나도 안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왜 죽었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 않는가.

동식은 차에 올라 말보로를 꺼내 물었다. 한 대 피우고 싶더니 진정되면서 배순옥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으로 스며들어왔다.

순옥의 말에 의하면 동식을 고창행복원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순옥이 아니었다. 행복원의 기록에 의하면 순옥이 동식을 데려다 놓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순옥은 부인했고 동식을 수소문했더니 고창행복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몇 번 찾아가고 있었다.

동식을 고창행복원에 데려다준 사람은 누구일까. 배순옥이 아니면 아버지 강남준이었을까.

강투이자 수녀의 말로는 강남준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했다. 동식은 박명희의 묘를 찾아가려던 것은 미투고 호안마을로 차를 몰아갔다.

"그때 나는 진주 본원에 있었어요. 우리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본부가 경남 진주에 있었거든요.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잠깐 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사이에 아이가 동해원에 왔던가 봐요."

박명희가 아이를 낳고 죽은 뒤에 아이의 행방에 대해 묻자 강투이자 수녀는 미안한 얼굴을 하면서 말했다.

"그 뒤로 아이는 어떻게 되었고 강남준 씨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동식은 투이자에게 차마 강남준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투이가 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동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동식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측은하고 가엾다는 눈으로 동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 남원고 학생들, 故 최명희 작가 · 노봉마을 기억 함께 기록

## 흔불문학관 추진 '흔불' 구술 채록 활동 참여

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흔불문학관이 추진하는 '흔불' 구술 채록 활동에 참여해 故 최명희 작가와 노봉마을의 기억을 함께 기록한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남원고 1~2학년 15명은 '결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 '결지기'는 우리가 살아온 삶과 이야기의 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학생들은 지난 5월 21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구술 인터뷰와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참여, 이들은 '흔불'과 지역 문화를 살펴보는 한편, 기존 구술 영상과 인터뷰 사례를 함께 공부하며 질문지 작성과 모의 인터뷰, 현장 기록 활동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진행할 구술 인터뷰 대상에는 故 최명희의 지인이자 드라마 '은실이' 등의 대본을 집필하고 대중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한 이금립 작가를 비롯해, 노봉마을 주민들이 포



남원=김기두 기자

기억하는 이들과 작품의 배경지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클래식 공연과 영상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흔불문학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문화를 가까이 접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단오맞이 행사 열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을 위한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단오맞이'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단오의 유래와 풍습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이월 전시가 진행됐으며, 1층 교육체험실에서는 천연 벌레 퇴치제를 담은 도토리 목걸이 만들기과 이웃 나라 일본의 여름 풍습을 체험해 보는 후우링 만들기 진행됐다. 또, 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는 여름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모아나'와 '벼랑 위의 포뇨' 상영회가 각각 운영됐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매일 1분화 체험형 만들기 △무로 영화 상영 △전통 놀이 체험 등으로 꾸며지며, 자세한 내용은 매일 15일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